

캔버라한인회 신바람~

조태용 대사 첫 한인 오찬 ‘화기애애’

‘대사님 사모님은 지금 장보시는 중’



캔버라 한인회 오찬 간담회에서 조태용 대사가 활짝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캔버라한인회 제공

“150여 명의 동포들이 찾아오셨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런데 가질 않으시더라고요. 대사관이 좋으셨나 봐요.(웃음) 바비큐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4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태용 신임 주호주 한국대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동석한 한인들도 덩달아 웃었다. 모처럼 한인들의 얼굴에 시종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이날 8일 호주에 부임한 조태용 신임 호주대사가 부임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15일 캔버라 한인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의 일이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캔버라한인회(회장 이동우)가 조 대사를 초빙하는 형식으로 성사됐다. 조태용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인 원로들을 극진히 예우하며 전반적인 한인회 동정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동우 회장은 한호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인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 스케줄을 전달했고 조 대사는 궁금한 사안은 일일이 물어보고 체크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조 대사는 아일랜드 대사 시절 ‘대사관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약속을 이행한 일화(본보 9월1일자 단독보도 참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사관 개방은 평소 지론이었다고. 당시 아일랜드에는 유학생을 포함해 1500명 안팎의 한인들이 있었고 이중 10분의 1인 150명을 초청했다. 물론 파란 눈의 아일랜드인들도 상당수 초빙됐다.

호주에서도 대사관 개방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지 묻자 넉넉한 미소로 화답했다. 동석한 한 한인회 관계자가 ‘호주 동포는 12만 명이니깐 10%면 1만2000명’이라고 말끝을 흐려 좌중을 폭소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2시간 남짓 진행됐다. 조 대사는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조태용 대사에 대해 “겸손하시면서도 전문 외교관 출신 대사로서 프로다운 분위기가 돋보이신 분”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 공관 초청 행사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아 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 수립에 실패했다는 혹

평이 적지 않았던 전임 김우상 호주대사와는 사뭇 달라 긍정적이고 설레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물론 김우상 전 대사의 공적(功績)도 적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개방되는 시절에 대사관의 높은 문턱은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지난달 호주한국일보의 발행인 시론에서 ‘신임 호주대사는 동포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공을 들여달라’고 당부했고, 톱신문은 사설에서 김 전 대사를 지칭하며 ‘대사(大事)에는 관심 없고 소사(小事)에만 치중했던 대사(大使)’라고 혹평했다.

그런데 조 대사 부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마디로 캔버라한인회는 신바람이 났다. 이동우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총평했다. 조 대사는 부임일 시드니공항 귀빈실에서 만난 시드니 한국신문 편집인과 담소를 나누기 전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인동포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호주 주류사회에 굳건

히 자리를 잡으셔서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이음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조 대사의 아내인 이진영 이화여대통번역대학원 부원장 겸 교수는 남편의 신규 부임지인 캔버라에서 내조를 하고 있다. 비공식 오찬인 만큼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 참석자는 “대사님 사모님은 지금 장보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해 또 한번 참석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고 한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참석한 한인들은 조 대사 부부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찬에는 이동우 회장을 비롯한 현직 캔버라한인회 임원들과 10대 김천주 회장, 11대 조주용 회장, 대사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기자

오용석 작품, 페더레이션 광장 상영

미래와 현재, 상상과 현실이 넘나드는 예술 세계



오용석 작 드라마변주. Asialink 제공



개막식에서 오용석 작가. 사진-Asialink 제공

멜번대학 내 Asialink와 국립현대미술관 교환입주 프로그램으로 지난 3개월간 시드니 Artspace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한 오용석 작가의 작품이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드라마변주, 미래의 기억, 클래식 No.1978, 클래식No.1915,**

듀엣 등 총 5작품이다.

오용석 작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영상 콜라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상영 작품에는 스페인 영화의 한 장면, 고전 SF 영화의 한 장면, 자신의 3살 사진, 오스트리아의 유명화가 에곤 쉐레의 사진, 쌍둥이 소녀의 사진을 사용했다.

오용석 작가는 본지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사진을) 조합해서 영화와 일상, 현실과 허구, 시간의 순환, 기억의 재현, 관점의 차이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 경험이 아주 긍정적이었다며,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를 돌아다니면서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 Tracey Moffatt

트레이시 모팻트 과 같은 작가의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고전미술과 현대미술이 공존하는 Art Gallery NSW가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전했다. Artspace는 “사용해본 스튜

디오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다른 작가의 작품 세계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오용석 작가는 지난 해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호주 비디오, 사진, 뉴미디어 아트전’에 참여 하면서 호주와 연이 닿게 됐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창동에 있는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오용석 작가는 Asialink에서 기획한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으로 시드니에 오게 됐다. 현재 창동스튜디오에는 공연 및 설치예술가인 Guy Benfield가 입주해 있다.

Asialink는 2010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교환입주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용석 작가는 설치예술가인 이정후 작가에 이어 Artspace에 입주

한 두 번째 한국 예술가이다. Asialink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과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Monash University Museum of Art는 일본의 Tokyo Wonder Site와 예술가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Asialink에서는 30명 이상의 작가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입주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박은진 기자

제목: Square and Square
기간: 17 September – 2 October 2011
장소: The Atrium, Federation Square, Melbourne

상영시간

- 페더레이션 광장 Atrium: 매일 정오, 2pm, 9pm
- 페더레이션 광장 대형 스크린: 5:30 pm, 10:30 pm